

“디지털 자동화로 고객 경쟁력 극대화”

한국 에머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최상의 퍼포먼스 달성 전략 소개

글로벌 자동화 전문기업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객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 및 솔루션을 제안했다. 에머슨은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PlantWeb Digital Ecosystem)’을 바탕으로 ‘최상의 퍼포먼스(Top Quartile)’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다.

한국 에머슨은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Digital Transformation Conference)’를 열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적의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에머슨은 이 자리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비롯한 IIoT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했다.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디지털 자동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표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마트 계기들을 통합한 공정 제어 네트워크로, 공정자동화 산업에 IIoT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드 디바이스와 제어, 안전, 자산관리, 서비스, 컨설팅 등 공정 자동화 전단계의 운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IIoT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머슨은 특히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의 전략과 성과를 소개했다.

앤드루 화이트 부사장은 ‘운영 확실성 전략을 통한 최상의 퍼포먼스’ 발표를 통해 “에머슨은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 등 IIoT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신뢰성과 생산성·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등을 높이고, EBITDA를 15%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라지브 고파라크리쉬난 상무는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IIoT 기반 포트폴리오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부터 연결성→분석

기술→서비스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업무흐름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 인력역량 개발, 이동성, 변화관리 등 핵심역량을 개선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선주 사장은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적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국내 고객 사례를 소개했다. 화학플랜트와 철강, 정

유기업 등 3가지 사례를 통해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통한 신뢰성 개선,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효과를 조명했다.

황 사장은 “여수의 한 화학플랜트는 기존 설비를 매뉴얼을 통해 관리해왔다. 에머슨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온라인 센싱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며 “철강회사 용광로의 경우 필수 측정 항목이 온도가 높고 온도와 습물이 뒤는 환경에서 유선 센싱라인은 라인이 타거나 정확성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불확실성이 산출한다. 이에 고객의 센싱라인을 없애고 무선 시스템을 적용해 센싱 품질과 작업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기 전 투자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를 망설일 수 있다”며 “앞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장 먼저 새 시대를 맞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솔루션 데모도 이어졌다.

박영지 과장은 신입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플랜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데모를 진행했다.

박 과장은 “과거 신입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번거롭게 진행하던 교육이 VR을 통해 간소화되고 반복 숙달과 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며 “VR 교육은 위험 상황에 대처하거나 장비 셋업, 선박 설계, 안전교육, 노후 공장 리뉴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ube@



62th Anniversary

한글 54주년

전력변환기 전문업체로 한결같이 걸어온
신념과 자존심의 62년

62년간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이화전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력기기 전문제조회사로서 1956년 설립된 이화전기는 기술과 품질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선두 기업입니다.

공장전경

공장내부

ALL IGBT UPS

산업용정류기

변압기

주파수변환기

www.eti21.com

대한전선, ‘초고압 접속훈련’ 교육 100회째

고객만족·제품 경쟁력·신뢰성 향상 이바지

대한전선(대표집행임원 최진용)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초고압케이블 접속 전문교육이 100회째를 맞이했다. 대한전선은 해당 교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품 경쟁력·신뢰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자사 기술훈련센터(TTC: Technology Training Center) 초고압케이블 접속훈련이 100회를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당진공장 내에 있는 기술훈련센터는 대한전선 직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은 물론,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케이블과 접속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다.

초고압케이블 접속훈련은 기술훈련센터의 주축이 되는 과장으로, 국내외 전력 관련 기관과 시공사 등 주요 고객사·협력사에 기술 교육과 접속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초고압케이블 접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대한전선은 기술훈련센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교육생들이 대한전선 기술훈련센터 접속훈련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설립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등 19개국 580여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접속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번째 교육 대상자는 사우디 전문 시공업체 세르콘(Cercon)의 직원들로, 이들은 사우디의 주요 전압인 132kV급 초고압케이블 접속에 특화된 교육을 받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총 4주간에 걸쳐 진행됐

며, 18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한전선 기술훈련센터 관계자는 “고객별 맞춤 커리큘럼과 실제 제품을 활용한 실습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대한전선의 초고압 제품과 시공능력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우암코퍼레이션

‘2018 월드 IT쇼’ 참가

‘스마트플레이스’ 솔루션 선택

유무선 통합솔루션 전문 개발사 우암코퍼레이션(대표 송해자)이 ‘2018 월드 IT 쇼(World IT Show)’에 참가, ‘스마트플레이스(Smart Place)’ 솔루션을 전시한다.

우암코퍼레이션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월드 IT 쇼’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초청을 받아 GS(Good Software) 인증 품질우수업체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우암코퍼레이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마트플레이스(Smart Place)’를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유무선 통신환경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전자문서공유, 영상통화, 음성통

화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통신 및 단말기를 지원하며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워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1대의 PC로 100명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화(virtualization) 기반 전자문서공유솔루션도 출시,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사무실”을 표방하는 스마트플레이스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 KB손해보험, 한화생명, 현대모비스, 이수홀딩스 등 공공, 금융, 기업 등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송해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국내 공공시장 1위 제품인 스마트플레이스 전자문서공유 솔루션을 ‘월드 IT쇼’ TTA 전시부스에 출품하게 됐다”며 “여러 기관, 기업들의 방문 및 상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